



생명·생태문제 해결책은?

“생명·생태 문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유정길 대표, 풀뿌리 지역공동체 구축 제안

불교계 전문가들이 현대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된 '생명·생태 문제'를 놓고 불교적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생태문제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생명평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의 주제발표 '생명평화의 패러다임에서 한국불교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이병인 부산대 교수가 맡았으며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 위원장), 범음 스님(불교와정책 편집인), 허남결 동국대 교수,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

“묵묵히 사회변화의 기본부터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불교다운 일이며 지역자치, 지역공동체, 지역문화운동은 앞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사회활동의 방향이다.”

유정길 대표는 생명·생태 문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통합적 비전과 그랜드디자인의 구성을 토대로 환경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대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

동안 인류가 실험해왔던 성과들에서 찾고 이를 불교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해온 창조적 실험과 성과들로 △의제 21(Agenda21)의 세계적 실험 △부탄의 GNH 정책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운동' △대만·일본불교단체 △실상사의 마을공동체운동 △정토회 등을 소개했다.

유 대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발표된 의제21의 방식은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 잘 설계된 변혁 매뉴얼”이라며

“2005년 조계종에서 채택한 불교의 환경 실천 지침서인 '불교환경의제21'의 중심 주제는 총무원이자 사찰의 주지스님이다. 거기에 사중스님, 종무행정과, 보살, 거사, 청년, 대학생,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동등한 파트너십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언급한 사례들의 주요 공통점으로 '지역(Local)'을 꼽았다. 그는 “의미 있는 세계의 사회운동 흐름은 분권화, 지역자치, 자립, 지역공동체를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사회운동의 미래도 지역공동체다”고 강조했다.

유정길 대표는 불교 사회활동의 목표를 '풀뿌리 지역의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찰은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동체센터를 건립해야 하며 교육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문제는 이러한 긴 호흡을 이끌어갈 엔진”이라며 “스님을 비롯한 재가 불자들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진정 사부대중이 승가의 주체라 한다면 재가자들은 종단이나 스님들로부터 인정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주체라고 확신해 신행·포교활동·불교사회활동을 독자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도법 스님은 “불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연결하는 지구촌 생명평화공동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사부대중 공동체, 지역공동체의 전통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현대 한국불교의 대안이다”고 말했다.

범음 스님은 “사찰은 교육장이다. 신도들에게 제대로 불교를 가르치면 서방정도가 이뤄진다. 일심동체를 사와와 불자들이 제대로 교육해야 생태와 환경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글=이은은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환경실천 지침서인 '불교환경의 제21'

- '불교환경의제21'은 △기본의제 △환경친화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5개 분야 31개 행동목표로 구성됐다.
- 1. 불교환경 기본의제**
 - (1) 불교생태·생명사상을 현대화하여 사회적으로 구현한다.
 - (2) 시대적 과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문화를 정립하고, 실천한다.
 - (3) 사부대중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4) 사찰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체계적 관리와 그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 (5) 환경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환경예산을 현실화한다.
 - (6) 불사를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한다.
 - (7) 정기적으로 불교환경실천대회(워크숍)를 개최한다.
 - 2. 분야별 의제**
 - 1)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한다.
 - (2) 에너지 문제를 환경친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 (3) 수질과 수량 문제를 환경친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 (4) 대기과 소음 문제를 환경친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 (5) 발우공양과 정토회 등을 되살린다.
 - 2)생태사찰 만들기
 - (1) 사찰 주변 자연생태계를 보전한다.
 - (2) 사찰의 물 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한다.
 - (3) 사찰 조경을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한다.
 - (4) 거닐고 싶은 사찰 숲길을 만든다.
 - (5) 사찰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한다.
 - 3)수행환경 지키기
 - (1) 정정한 수행가풍을 되살려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
 - (2)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사업 계획과 추진에 참여해 의사를 적극개진한다.
 - (3)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 제정이나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 (4) 사찰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계몽한다.
 - 4)사찰과 지역공동체
 - (1) 농업을 권장하고, 유기농을 실천한다.
 - (2) 도농 사찰교류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창출한다.
 - (3) 사찰이 지역 환경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 (4) 생명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안교육을 진행한다.
 - (5) 사찰이 지역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국내외서 진행중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험과 실천들

부탄의 GNH(국민총행복)정책

1972년 16세의 나이로 불교교가 부탄의 왕이 된 지그메 싱에 왕추크 국왕은 국민총생산(GNP)이 물질적 탐욕을 조장하고 자원과 인간은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총행복도인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제안했다. 부탄의 행복지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철저한 자연보호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 증진 △좋은 국가 통치라는 4가지 기준으로 행복을 평가한다.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운동'

가난한 나라의 개발운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운동은 아리아라트네 박사가

창시했다. 박사는 개인의 깨달음과 가족의 각성, 마을공동체의 각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와 세계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완결적인 개발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스리랑카의 1만 3000여개 마을이 참여한 운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만·일본불교단체

대만에서는 1960년 초중반부터 시작된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중대선사 등이 오늘날 각각 5~600만이 넘는 신도를 자랑한다. 약 4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대만에서 가장 활력 있고 큰 사회도덕력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교가 됐다.

일본의 범화경계열의 재가불교교단인

'일정교성회'는 대만의 불광산사나 자제공덕회와 비슷한 규모로 활동하고 있으며 약 600만의 신도들이 생활속에서 수행하는 삶과 원력을 갖고 열성적 활동을 하고 있다. 1938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월 1회 이웃과 생명을 위해 '한끼를 바치는 운동'을 하고 여기서 모아진 기금으로 환경운동, 개발협력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불교기구로 평가되고 있다.

실상사의 마을공동체운동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는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출범으로 시작했다. 이것을 주도한 도법 스님은 90년 초부터 실상사를 근본도량으로 '선우도량'이라는

불교 개혁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모색을 해왔고, 이후 지리산 댐 건설 반대 운동을 지역주민들과 전국의 사회단체들의 힘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뤄 냈다.

정토회

정토회는 1980년 중반부터 불교혁신과 사회운동을 해왔던 범음 스님과 젊은 활동가들이 모여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가치로 만든 서원공동체다. 현재 정토회의 사회활동기구로는 사단법인으로 환경운동기구인 '에코붓다', 인권·평화운동기구인 '좋은벗들', 개발협력기구인 '한국 JTS'가 있고, 정토회가 참여하지만 독립적인 기구로 평화와 남북문제를 위한 '평화재단'이 활동하고 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승단의 소극적 태도 지적 ... 다양한 의견 보여

토론회 실시간 반응

토론회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불자들은 영상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올렸다. 불자들은 승단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행동하는 조계종이 될 것을 당부했다.

'팔정도'는 “조계종은 국가 다음으로 많은 산림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사회를 보면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의 환경운동참여는 환경이 없을 정도다. 어느 단체들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앞장을 서야 하는 불교지만 관심을 너무 갖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전국이 지금

삼질을 당하고 있고 또 불교유적지도 많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제대로 된 조직이 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계종도'는 “말로만 정책으로만 해서는 안된다. 행동하는 조계종이 돼야 한다. 지금 타종교는 중앙이든 외부든 어느 곳에서든 행동하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는 늘 행동하라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번도 보이지 않는다. 아래 사람들에게 일만 시켜놓고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 과연 변화하는 모습일까? 오너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조직이다”고 지적했다. 이은은·천진영 기자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를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팔 홀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이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승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사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